

화집

주최 강원도  
주관 (재)강원문화재단  
문의 033-240-1363  
mpyc.kr

# 4色 콘서트

in  
삼척

이상희복의 바람을 담아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찾아갑니다.

2021.11.29. (월) 오후 7시  
삼척문화예술회관

## 박종성 *harmonica*



박종성은 2002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청소년 트레몰로 솔로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 하모니카 솔리스트로서는 최초의 국제대회 수상자가 되었고 2008년 중국에서 열린 동 대회에서는 총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성인독주부문, 2중주, 앙상블)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4년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하모니카대회에서 자작곡으로 한국인 최초 트레몰로 솔로 부문 1위, 재즈

크로매틱 솔로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11년에는 전일본 하모니카 대회에서 트레몰로 솔로 부문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였다. 13세 때 우연한 기회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스승 최광규로부터 헌신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에 하모니카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예술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최희준 교수 사사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과정을 밟으며 음악 영역을 넓혀왔다. 앨범 <딤플>, <런 어게인>, <하모니시스트>를 발표했으며,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초청으로 2015년부터 3년 이상 전국투어 콘서트 솔리스트로도 동반 출연해 왔다. 뿐만 아니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과 오케스트라 챔버 누벨유럽,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충남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오고 있는 박종성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작곡된 김형준 작곡가의 하모니카 콘체르토 <하모니카 메모리얼>을 헌정받아 초연하며 하모니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 조영훈 *piano*



피아니스트 조영훈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졸업 후 헝가리 국립 리스트 아카데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대상, 영산 음악콩쿠르 전체 대상, 음악춘추콩쿠르 1위, 한국리스트콩쿠르 1위, 오사카 국제 음악콩쿠르(일본) 3위, 바르톡 국제 피아노콩쿠르(헝가리) 2위와 특별상을 수상했다. 우크라이나 글린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헝가리 세계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앙상블 가우디움과 협연 연주를

했으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스트라디움 등에서 독주회, 협연, 앙상블 및 기획공연에 출연했다. 현재 한국리스트협회 총무와 아즈앙상블, 엠클래식 멤버로 활동 중이다.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orchestra*



1997년 2월 창단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정상급 지휘자를 영입하고 우수한 기량과 열의를 갖춘 연주자들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5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주요 오페라 및 발레공연,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등을 포함하여 연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2000년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118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2,200여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하는 매력적인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교향악단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이승원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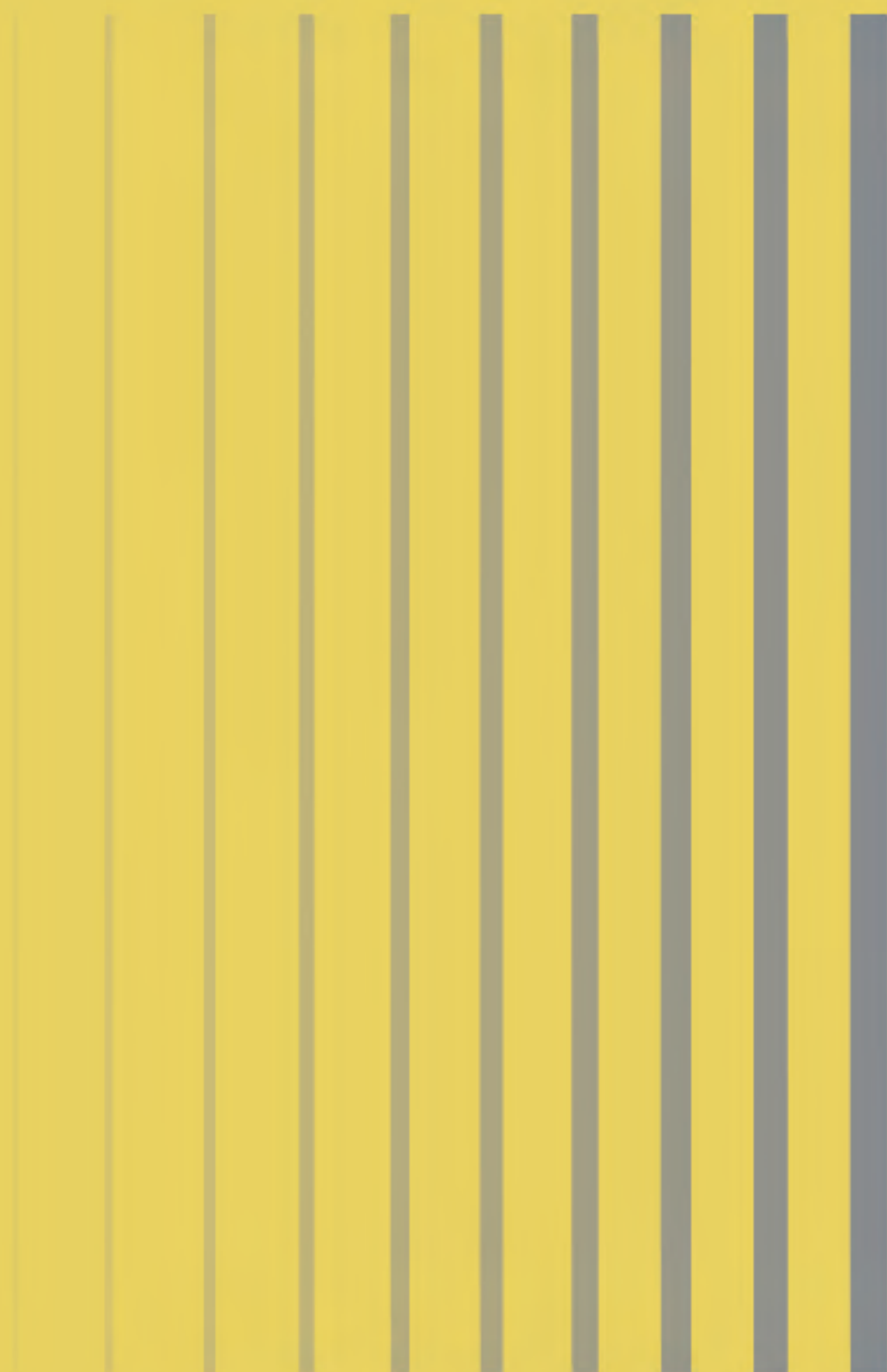
이승원은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중 도독,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타베아 침머만의 최초 한국인 제자로서 디플롬 과정 최고 점수로 졸업, 음대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Konzertexamen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했다.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 및 입상하였으며 현악사중주팀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로 2009-2017년까지 활동하며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 독일 ARD

국제콩쿠르 준우승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승원은 지휘자 Samuel Lee 이름으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트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카레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부천시향, 원주시향 등을 지휘하였고 네메예르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레 가티 등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들에게 지휘 마스터클래스 및 페스티벌 등을 통해 가르침과 영감을 얻었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고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인 마에스트로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의 런던필과의 내한 공연을 어시스트 하였고, 2019 Accademia musicale Chigiana Festival 지휘 오디션에서 발탁된 유일한 동양인 지휘자로서 시에나 린노바티 극장에서의 데뷔 공연과 함께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도쿄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주최하는 리카르도 무티 이탈리아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리카르도 무티에게 직접 발탁된 유일한 한국인 지휘자로서 <가면무도회>로 일본 지휘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비올라 교수, 베를린 C.P.E.Bach Musikgymnasium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 Programs

<b>에드워드 엘가</b> <b>E. Elgar</b>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번호 20 2악장 <b>Serenade for Strings in E minor op.20 II. Larghetto</b>
<b>제임스 무디</b> <b>J. Moody</b>	톨레도 : 스페인 판타지 <b>Toledo : Spanish Fantasy</b>
<b>김형준</b> <b>Kim Hyung-Joon</b>	하모니카 메모리얼 *제13회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선정곡 <b>Concerto for Harmonica and Orchestra &lt;Harmonica Memorial&gt;</b>
<b>조지 거슈윈</b> <b>G. Gershwin</b>	랩소디 인 블루 <b>Rhapsody in blue (Arrangement by 박현민)</b>
<b>아스토르 피아졸라</b> <b>A. Piazzolla</b>	아디오스, 피아졸라 <b>Adios, Piazzolla (Arrangement by 김형준)</b>
<b>민요</b>	새야 새야 (Arrangement by 박종성 임로한 Orchestration by 김태영)

\*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色콘서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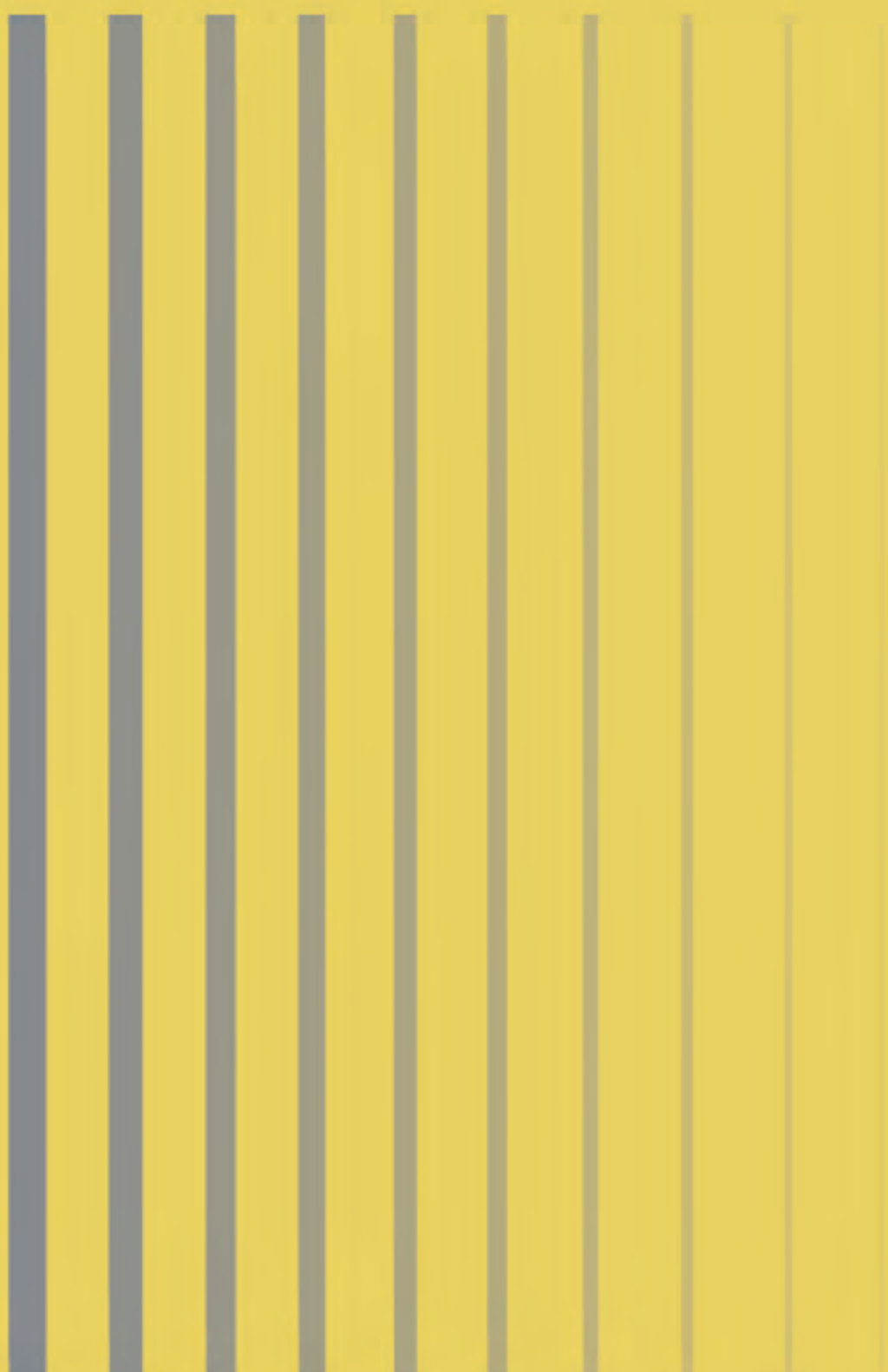
일상회복의 바람에 따라 음악과 함께

화합, 희망, 행복, 힐링을 기대하며

삼천, 영월, 횡성, 평창에서 펼쳐집니다.



MPyC



공연 만족도 조사하기  
(~12월 5일까지)